

■ 주요 업무 사례 ■

대우증권을 대리하여 상장법인 유상증자 인수업무 관련 자본시장법 제125조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승소

지평은 상장법인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인수인인 대우증권의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우증권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는 대법원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판결 내용과 의미에 관해서는 '화제의 판결'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 [아시아경제 - 대법, 대한해운 주주 '증권사 손배소' 파기환송\(2016. 1. 7.\)](#)

[담당 변호사]



김지형 고문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배성진 변호사



배기완 변호사